

2013년 1월 5일



진정한 '스타'가 됩시다

가까이에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곁에 두고서 가족처럼 서로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표현도 바뀌게 된 것이겠지요. 사실 어떤 집에서는 개나 고양이가 가족 못지않은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과 한 식탁에서 먹고, 잠도 사람과 함께 잡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동물과 똑같이 되기를 원할까요? “개가 그렇게 좋아? 그럼 똑같이 개가 되면 어때?”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벌컥 낼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1 코린 2,9) 일을 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지상의 수고로운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요한 1,1),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요한 1,14) 이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주님 공현 대축일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물어 물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런 예수님을 찾아 뵙고 매우 기뻐하면서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사랑 때문에 낯아지신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 뵙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지닌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신이 지닌 소중한 것,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그분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기쁨에서 힘을 얻어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소유와 집착에 빠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별’, 진정한 ‘스타’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손희송 배례덕도 신부 / 서울대학교 사목국장

† 공지사항

1. 유성모 요셉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 미사 후 행사 및 식사가 있습니다.
2. 공동체 식사를 준비해 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예비자 교리 모집 안내
-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부님 혹은 사목회에 알려주십시오.
4. 미사 전 기도 안내
- 미사 시작 전 15 분 부터 묵주기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소식

1월 6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 13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모든 시대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장 -